

하나님 나라(4, 5):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

1. 복음서에서 재림 관련 어휘 용례

(1) '재림'(παρουσία): 마태복음에만

- 마 24:3, 27, 37, 39

(2) 인자의 오심

1) 재림을 지칭하는 경우들

- 마 24:44/눅 12:40

- 마 25:31

2) 재림을 지칭하지 않는 경우들

- 마 16:27-28; 참조. 막 8:38/눅 9:26(예수님의 죽음, 부활, 승천, 성령 강림, 성전 파괴)

- 마 24:30/막 13:26/눅 21:27(성전 파괴)

- 마 26:64/막 14:62(예수님의 죽음, 부활, 승천, 성령 강림, 성전 파괴)

(3) '세상 끝'(συντέλεια τοῦ αἰῶνος) - 마태의 표현

- 마 13:39, 40, 49

- 마 24:3

- 마 28:20

(4) '마지막 날' - 요한의 표현

- 요 6:39-40, 44, 54

- 요 11:24

- 요 12:48

(5) 단수로 사용된 '날': 그 날, 인자의 그 날, 심판의 날

1) 그 날

- 마 7:22; 24:36; 25:13; 26:29

- 눅 17:24, 30

- 참조. 마 24:42, 50

- 참조. 눅 6:23

2) 심판 날

- 마 10:15; 11:22, 24; 12:36; 참조. 눅 11:31(심판 때)

2. 재림 관련 구절들

(1) 재림에 관한 직접 가르침

- 마 7:21-23
- 마 11:20-24
- 마 12:36-37
- 마 24:36/막 13:32
- 마 25:13
- 눅 6:23
- 눅 14:12-14
- 눅 17:22-24
- 눅 21:34-36
- 요 5:27-29
- 요 6:39-40, 44, 54(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)
- 요 12:48
- 요 14:3(부활, 보혜사, 재림); 참조. 14:18(부활, 보혜사)

(2) 재림에 관한 비유들

- 마 13:24-30, 36-43(가라지 비유)
- 마 13:47-50(그물 비유)
- 마 20:1-16(포도원 품꾼 비유)
- 마 24:37-44; 참조. 눅 17:26-36(노아의 때, 두 남자, 두 여자, 도둑 비유)
- 마 24:45-51; 참조. 눅 12:41-46(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)
- 마 25:1-13(열 처녀 비유)
- 마 25:14-30; 참조. 눅 19:11-27(달란트 비유; 므나 비유)
- 마 25:31-46(양과 염소, 임금 비유)
- 막 4:26-29(자라나는 씨앗 비유)
- 막 13:33-37(집 주인의 도래)
- 눅 12:35-40(주인의 도래)
- 눅 13:23-27(집 주인 비유)

3. 재림의 때와 징조

(1) 마 24-25장(/막 13장/눅 21장)

- 1) 예수님의 예언(24:2)
- 2) 제자들의 질문(24:3)
 -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
 - '파루시아'의 때와 징조

3)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(24:4-35)

- 때: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(24:34)
- 징조: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

4) 재림의 때와 징조(24:36-25:13, 14-46)

- 때는 아무에게도, 아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음
- 징조는 전혀 주어지지 않고 도둑처럼 임함

(2) 막 13:33-37(집 주인의 도래); 눅 12:35-40(주인의 도래)

4. 재림과 심판/보상: 마 20:1-16(포도원 품꾼 비유)

(1) 앞 문맥(19:16-30)

- 19:16-26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.
- 19:27-30은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소개한다.
-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혁명적 선언이다(30절).

(2) 비유의 구조

(1) 1-7절	첫째 부분: 일꾼들 고용
1) 1-2절	아침 일찍 고용
2) 3-5상절	오전 9시경에 고용
3) 5하절	정오, 오후 3시경에 고용
4) 6-7절	오후 5시경에 고용
(2) 8-15절	둘째 부분: 품삯 지불
1) 8절	관리인에게 지불 지시
2) 9절	마지막 온 자들에게 지불
3) 10절	처음 온 자에게 지불
4) 11-12절	처음 온 자들의 불평
5) 13-15절	주인의 반응
(3) 16절	결론적 선언

(3) 석의적 고찰

1) 첫째 부분: 일꾼들 고용(20:1-7)

① 아침 일찍 고용된 일꾼들(1-2절)

* γάρ, '이는 ... 때문이다'

- 비유는 19:30과 20:16로 감싸인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룬다.

* ἄμα πρωί, '아침 일찍'

- 땅주인은 일꾼들과 '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' 합의한다.
- 이러한 합의는 13절에서 주인의 답변 근거를 제공한다.

② 오전 9시경부터 오후 5시경에 고용된 일꾼들(3-7절)

- 땅주인은 오전 9시경, 12시경, 오후 3시경, 5시경에 나가서 다른 일꾼들을 고용한다.

2) 둘째 부분: 품삯 지불(20:8-15)

① 관리인에게 품삯 지불을 지시하는 포도원 주인(8절)

- 저녁이 되자 주인이 관리인에게 품삯을 지불하도록 지시한다.
- 이 비유에서 '저녁'은 최후의 심판 장면을 연상시킨다.
- 주인이 '관리인'에게 지시한 품삯 지불 방식: '꼴찌들부터 시작해서 첫째들에게까지'
- 참조. 19:30과 20:16

② 마지막 온 자들에게 품삯 지불(9절)

- '제십일시' 곧 오후 5시경에 고용되었던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.
- 그들 입장에서 주인의 이러한 조치는 상상을 뛰어넘는 너그러운 것이다.
- 이처럼 꼴찌들에게 주인, 곧 하나님은 자비롭고 관대한 분이시다.

③ 첫째 온 자들에게 품삯 지불(10절)

- 첫째들은 당연히 '자신들이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.'
- 그들의 이러한 기대는 누가 보아도 자연스럽게 타당해 보인다.
- '그런데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.'
- 이 시점에서 주인은 너무나 예상을 벗어난 지극히 불공정한 인물처럼 보인다.

④ 첫째 온 자들의 불평(11-12절)

- * '이 꼴찌들은 한 시간 일했는데, 당신께서는 그들을 하루의 짐과 타는 열기를 견뎌낸 우리와 동일하게 대우하셨습니다.'
- 첫째들의 불평은 당연해 보인다.
-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들의 불평은 더 받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기대(참조. 10절)가 아니라, 꼴찌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받았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.

⑤ 주인의 반응(13-15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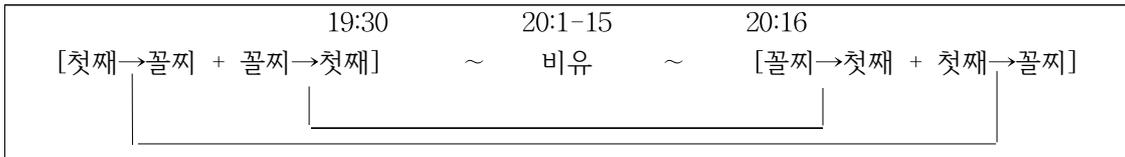
- 첫째들의 불평과 관련하여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주인이 답변한다.
- 이 답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.
 - 1) 주인은 첫째들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하였고, 따라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.
 - 2) 주인은 꼴찌들에게도 관대하게 베풀기 원한다.
- * '나는 이 꼴찌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기를 원하오.'(14하).
- 주인이 꼴찌들에게 첫째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 자신이 그렇게 원하였기 때문이다.
- 물론 꼴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, 따라서 그러한 기대를 하지도 않았다.
-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원했다.
- 고용주의 이러한 임금지불 원칙은 고용주 입장보다는 일꾼들 입장을, 정당함보다는 자비로움을 중시한 결과이다.
- * '내가 내 자신의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소?'(15상절).
-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차가운 경제정의가 아니다.
-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차가운 경제정의를 넘어서는 따뜻한 관대함과 자비이다.
- 첫째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보상 원리를 자신들의 세상적 보상 원리에 비추어 매정하게 비판한 데 있다.

* '아니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의 눈이 악한 것이오?'

-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, 곧 그분의 기준, 결정, 행동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하며,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악하다.
- '악한 눈'은 아마도 탐욕스럽고 인색한 관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(참조. 6:23).
- 그들의 자기중심적 관점과 그로 인한 기대와 불평은 악한 것으로 선언된다.
- 그들은 더는 자신들의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.

3) 결론적 선언(20:16)

* '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들이 되고 첫째들이 꼴찌들이 될 것이다.'



- 앞의 비유가 보여주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베드로의 질문에서 비롯된 더 큰 보상에 대한 그릇된 기대(19:27)를 교정하려는 첫째들의 위험성이다.
- 첫째들은 자신들의 불평의 원인인 세상적 경제정의 원칙을 내려놓고 주인의 자비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돌아가면,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.
- 하지만 그가 자신의 불평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인과 대립하며 한 데나리온 받는 것조차 거부한다면,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운명에 빠질 수도 있다.
- 그렇다면 첫째들이 될 것으로 약속받는 꼴찌들은 누구인가?
- 그들은 시간상 늦게 온 자들일 뿐 아니라,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도 부족한 자들로 보인다.
- 이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.
-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(곧 고용단계부터) 끝까지(곧 품삯 지불 단계까지) 철저하게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난다.
- 사실 첫째들도 첫째들이 된 것은 주인이 아침 일찍 그들을 불러주었기 때문이다.
- 첫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애초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.
-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.

(3) 포도원 주인 비유의 메시지

1) 첫째들의 문제

2) 베드로에게 약속된 '백배 보상'과 비유의 '동일보상' 원칙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?

- 베드로는 자신(들)이 다른 이들보다 첫째로 왔으니 '영원한 생명'에 더하여 꼴찌들보다는 무엇인가 더 받기를 기대한 것 같다.
- 그러한 기대에 대해 비유는 저녁 이후, 곧 '오는 세상'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질 것은 '영원한 생명'밖에 없다는 점을 확증해준다.
- 그렇다면 19:29에서 약속된 백배 보상은 무엇을 뜻하는가?
- 첫째, 백배 보상은 영적인 것이다.
- 둘째, 그것이 주어지는 때는 '현 시대'가 끝나기 전, 포도원에서 일하는 기간이다.

-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인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영적 특권을 지칭한다.
- 그렇다면 열두 시간 일한 자는 결코 손해 본 것이 아니다.
- 그는 포도원에서 참된 행복을 하루 종일 풍성히 누렸기 때문이다.
- 그에 반해 한 시간 일한 자는 결코 이득 본 것이 아니다.
- 그는 하루 종일 포도원 밖에서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그림자로 고통당하다가 정작 포도원에서는 참된 행복을 한 시간밖에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.
- 이제 베드로는 '현 시대'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르면서 수고하였던 것이 고생일뿐 아니라 백배 보상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.

5. 하나님 나라의 완성(계 21-22장)

(1)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(21:1-8)

- 두 음성은 공히 이중 환상에 관해 언급한다.
-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 부분(곧 하나님의 새 창조)을, 천사의 메시지는 둘째 부분(곧 새 예루살렘의 출현)을 설명한다.

1) 이중 환상(21:1-2)

- 하늘의 의미
- 새 예루살렘-신부 상징

2) 천사의 음성(21:3-4)

- 보좌의 음성
-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전한 회복의 결과

3) 하나님의 음성(21:5-8)

- 하나님 자신의 말씀
- 알파와 오메가
- 생명수(사 55:1)
- 이기는 자

(2) 완성된 구원받은 공동체(21:9-22:5)

- 이 환상 단락은 21:1-8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.

1)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개략적 묘사(21:9-14)

- 9-10절과 17:1-3과의 관계
- 성벽과 열두 대문
- 열두 기초석
- 성은 구원받은 공동체

2) 건물들의 치수(21:15-21)

- 겔 40:3, 5
- 정방형 구조의 의미
- 성벽의 높이: 144 규빗
- 건축물들의 고귀한 특성

3)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삶 묘사(21:22-27)

- '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'
-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의 결과
- 사 60:3-6의 성취
- 사 60:11의 성취

4) 에덴 동산과 비교되는 새 예루살렘(22:1-5)

- 에덴 동산의 궁극적 목표
- 겔 47:1-12의 성취: 생명수의 강, 생명 나무의 열매
- 아담에게 부여된 통치권의 성취

(3) 결어(22:6-21)

- 이 결어는 1:1-3의 서언과 1:4-8의 시작부분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한다.
-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처음과 끝이 적절히 연결되고 있다.
- 이 결어는 교회가 이 책의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보여 준다.

1)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메시지의 성격과 기능(22:6-11)

- 1:1과의 관계
- 경배의 대상
- '인봉하지 말라'(비교. 단 12:4, 9)

2) 예수님 자신에 의한 이 메시지의 확증(22:12-16)

-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선언
- 심판주로서의 예수님
- 예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의 운명
- 메시아적 통치자로서의 예수님(민 24:17; 사 11:10)

3) 새로워진 예배(22:17-20)

- 예수님의 임박한 오심에 대한 선포
- 성찬 예식 분위기
- 사 55:1
- '가감하지 마라'(신 4:2; 12:32)
- 재림의 긴박성: '속히 오리라.'

4) 서신을 마무리하는 축복(22:21)